SK건설,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행복날개협의회 비즈파트너사와 장기적 협력

SK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1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건설부문 최초로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SK건설이 국내 건설업계를 통틀어 동반성장지수 평가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초의 건설사가 된 것이다.

SK건설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처음 실시된 2011년 이후 2년 연속으로 건설분야 중 최고 등급인 양호 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도 역시 건설업계 최고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2012년까지 우수, 양호, 보통, 개선 등급으로 구분됐으며, 2013년부터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의 4단계로 구분된다.

SK건설은 그 동안 비즈파트너와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SK건설은 지난 2011년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우수 비즈파트너 협의체인 행복날개협의회를 발족해 비즈파트너와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금융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교육훈련 실시 등 건설업계 최고 수준의 동반성장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실천해왔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조기 도입, 비즈파트너 직원 해외현장 파견, 공정거래이행 협약식 개최, 하도급 상벌제도 정비 등 활동도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 힘이 됐다.

이 밖에 SK건설은 매년 CEO가 비즈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경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한마음 걷기대회를 통한 소통을 장을 가지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현장 안전점검을 공동으로 진행해 임직원들의 현장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기행 SK건설 사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선정은 SK건설 구성원 모두가 지난 몇 년 동안 비즈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SK건설의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비즈파트너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전략적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 나감으로써 동반성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찬섭 기자

롯데건설, 차세대 하수처리기술 준공

기존공법 대비 고효율 · 저에너지 · 집약화 가능

롯데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고기리에 위치한 곡현 · 손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장에서 차세대 하수처리기술 테스트 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국내 최초 호기성 그래뉼 슬러지(AGS, Aerobic Granular Sludge) 기술의 상용화 전단계로 하루 150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AGS 하수처리 기술은 모래알 정도의 크기로 뭉쳐진 미생물을 하수처리에 적용한 공법이다. 기존 하수처리공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양의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효율이 향상됐으며, 미생물의 침전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 소요 부지가 절감되고 에너지 사용량도 감소하는 장점이 있다. 상용화가 되면 국내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새로운 개량 모델로서도 기대된다. 시설의 용지는 용인시 협조로 제공 받았다.

롯데건설은 태영건설, 블루뱅크와 함께 2년간의 개발 기간을 통해 이 기술을 상용화해, 향후 2025년까지 30년 이상 된 50여 개 노후 하수처리장의 개량 및 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이주호 원장은 "분리막 수처리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갖춘 롯데건설이 태영건설 및 블루뱅크와 협력해 차세대 하수처리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라며 "부지축소, 운영비 저감 및 최근 강화되고 있는 방류수 기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근 기자

SK건설,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SK건설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건설업 안전보건활동 평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본선 진출사업장 6곳을 선정했고, SK건설 팽성-오성 도로건설 현장이 경합 끝에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SK건설은 안전보건문화 정착이 구성원의 행복이라는 기업 보건안전문화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팽성-오성 현장은 QR코드 안전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 도입해 현장 안전보건활동에 활용해 오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로 시공 상태와 건설장비 점검, 근로자 안전관리 등에 적용돼 현장안전을 저해하는 부적합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더불어 위험요소 즉각 신고제, 작업반장 책임 실명제, 외국인 근로자 심리상담 및 외국어지원 서비스, 야간작업 시 철저한 안전관리 등 안전 · 보건 수칙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지켜오고 있다.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3건

이달 건설신기술로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하구조물 공사에 적용하는 개방형 흙막이 공법 등 3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65호~제767호)했다고 밝혔다.

제765호 신기술('역타공사에서 흙막이벽체 지지를 위한 개방형 복합띠장 공법')은 지하구조물 공사 시 지상과 가까운 부분부터 시공하는 탑다운공법에 적용하는 기술로 개방형 흙막이 지지방식을 채택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고 건축물 벽체를 한 번에 시공할 수 있어 시공이음부의 누수 발생 등 문제를 해결한 흙막이벽체 지지공법이다.

기존 탑다운 공법은 굴토와 함께 지하벽체와 슬래브를 형성하면서 시공함에 따라 작업공간 확보에 불리하고, 건물 벽체의 연속성이 결여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므로써 도심지 대심도 건축물공사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제766호 신기술('다층막 구조의 재활용 방수시트를 이용한 분리 거동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ofix System)')은 환경친화적 소재 및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도막재, 다층막 구조의 시트재와 분리 거동형 신축부재를 이용한 건축 · 토목 구조물의 슬래브에 적용 가능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 다양한 형태의 복합방수공법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으나 도막재와 시트재의 이질재료간 결합문제, 유독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고정접합부의 파단문제 등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 반해, 이 기술은 접합부 파손, 환경오염 등을 줄이면서 유지관리 비용도 저감할 수 있어 높은 활용성이 기대된다.

제767호 신기술('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은 터널 내 숏크리트 타설 시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해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공급량에 따라 분말형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사시스템과 이를 이용하는 숏크리트 공법이다.

기존 숏크리트 공법의 분말형 급결제 공급장치는 콘크리트 유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의 급결제를 분사하기 때문에 숏크리트의 강도가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 제어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기술 대비 숏크리트 및 급결제의 낭비되는 손실율이 46% 저감돼 폐기물 및 분진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터널 내 작업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 산단 경제공동체 구축

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재탄생

전북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된지 40년 만에 낙후된 굴뚝산업의 이미지를 떨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경제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로 거듭 태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업으로 추진한 2015년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공모사업에 익산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

익산국가산업단지는 2016년부터 10년간 2,576억 원의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을 투입해 ①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산업구조, ②문화와 산업이 공존하고 근로자와 지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인간중심 산업단지, ③환경(에너지 저감)과 안전(사건 · 사고, 재해, 재난예방)을 우선하는 그린산업단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형 ICT 산업과 주얼리, 식품 등 기존 전통산업 융합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이미 175억원의 투자가 확정된 6,000㎡ 면적의 종합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해 융복합디자인센터, 국제컨벤션센터, 업종고도화센터, 산학융합지구 등 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등을 건립한다.

전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전정희 의원과 익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테크노파크, 산단 경영자협의회와 전북도가 수차례 회의와 토론을 통한 협업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이다"고 말했다.